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박상*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1. 14(토) ~ 2. 10(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제가 참여한 어학원은 필리핀 Subic Bay에 위치해있습니다. 그중에서 Cubi라는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어학원 규모는 생각보다 작은 건물이지만 공부하는데 크게 불편함 없었으며 시설 또한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었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매우 좋았으며, 가끔 시내라고 할 수 있는 하버에 갈 때마다 한국인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필리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수업시간 총 8시간이 그룹수업과 개인수업으로 나뉩니다. 그룹수업과 개인수업 모두 첫날에 본 시험성적에 따라서 성적 순서로 구분됩니다. 그룹수업은 Speaking, Listening, Reading, Grammar로 크게 나뉩니다. 개인수업은 이 모든 것들과 Voca, Writing도 같이 혼합해서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사들 모두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회의하고 준비했을 정도로 매 수업시간에 열정적이며, 학생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을 수업시간마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제는 매일매일 해야 하지만 부담되지 않고 수업 끝난 후 5~10분내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양만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자신이 수업시간에 더욱 참여하고 싶고, 생각한 것보다 그룹의 진도를 못 따라 가는 것 같으면 미리 단어정도는 예습해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첫 주는 서로 어색해서 수업시간에 참여를 하지 않고 눈치만 보지만, 그 어색함만 풀면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수업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Activity	Activity는 힘든 것보다 즐거운 것들만 있었습니다. 첫 주에 진행한 Subic tour(시내 투어) 프로그램부터 Intercultural Exchange(마닐라U.P대학탐방), Manila tour(쇼핑몰 투어), Orphanage volunteer(고아원 봉사), Yacht tour(요트) 등등 외에도 별도로 주말마다 친구들과 따로 알아보고 갈 수 있습니다. 고아원 봉사의 경우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약간의 기부금(생필품 및 스낵과 음료)이 필요하지만, 부담되지 않는 선으로 기억됩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밖은 덥고 습합니다. 그러나 교실은 항상 에어컨을 가동시켜서 춥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안전	매우 안전합니다. 걱정해야 하는 것은 식당이나 바에 갔을 때 자신의 지갑 및 핸드폰 안전만 책임지면 될 것 같습니다.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시설은 기대보다 이하입니다. 그러나 생활하는 면에서 불편한 점 없습니다. 규칙은 특별한 것은 없으나 약간의 통금시간이 있습니다. 숙소에 항상 가드가 있어서 안전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식당 밥 맛있습니다. 아침은 빵, 팬케이크, 샐러드, 과일, 누룽지가 나오거나 밥, 국, 반찬, 과일이 나옵니다. 점심과 저녁은 한식으로 나옵니다.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p>
교통	<p>어학원 앞에서 FB(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FB로 하버나 sm을 갈 수 있는데 돈도 적게 들고, FB안에 웅기종기 모여 앉아 있으면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친해집니다. FB이외에 택시도 있으며 올롱가포에는 지프니(버스)와 트라이시클(오토바이)이 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35,4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및 기념품	330,000	2주차부터 자주 저녁마다 나가서 사먹게 됩니다. 특히 현지음식을 주로 먹으러 다녔습니다. 기념품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망고(Jelly, Dried), 각종 과자류 등등입니다.
합계	1,065,400	

5. 출국 전 준비사항

옷 여벌 충분히 준비해가면 편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반팔만 가져가는 것보다 얇은 카디건이나 긴팔도 몇 개는 준비해야 합니다. 숙소 앞에 수영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수영하러 호텔도 가게 되는데, 수영복 꼭 챙기면 쓸 일 많습니다. 상비약의 경우 챙기면 좋습지만, 어학원 내 사무실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 각 종 벌레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모기가 좀 있습니다. 외출 할 경우 반팔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 몸에 바르고 다닐 모기약 정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바른다고 해서 물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각 층마다 정수기가 있어서 수시로 물을 마실 수 있는데, 텀블러를 가져가지 못해서 불편했습니다. 작은 컵정도 들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학원 내에서 빨래를 다 해줍니다. 그렇지만 속옷 같은 경우 말기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데, 따로 빨래를 하고서 방에 걸 수 있도록 옷걸이 몇 개 정도 챙기면 유용할 것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여기를 가나 마찬가지로겠지만 필리핀 어학연수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놀러 다니며 자유를 만끽하고 휴가를 보내러 온 친구들과 다른 하나는 공부를 하러 온 친구들로 구분됩니다. 그렇지만 막상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면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음가짐만 확실히 한다면 즐겁게 노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모두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즐겁게 노는 것은 그냥 친구들과 좋은 장소 가서 맛있는 음식과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것은 수업시간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어색하지만 선생님들은 항상 학

생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도해주시며, 학생이 적극적이면 선생님들은 더욱 수업에 열의를 갖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4주 동안의 수업이 영어실력의 엄청난 향상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4주간 매 수업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낸다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과 영어에 대한 두려움 모두 극복 가능합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영어를 했다면 스피킹과 리스닝은 확실히 향상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어학연수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참여할 생각이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수빅에 방문해서 어학원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단체로 모였던 첫 번째 시간, 이날 모두들 자기소개를 하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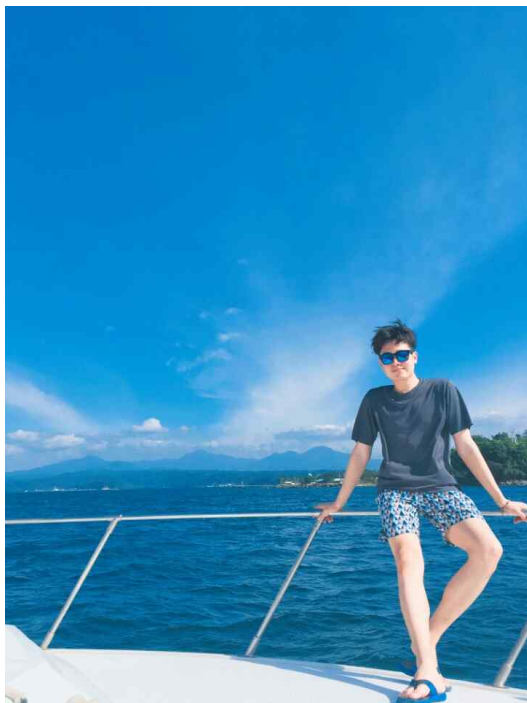
U.P대학 마닐라 투어 때, 현지 대학생들과 대학 탐방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다.



정말 착하고 맛있는 동생들과 어학원 내
수영장 앞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었다.



고아원 봉사활동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요트투어, 멋진 공간에서 좋은 사람들과
재밋게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날 스피치, 운 좋아서 스피치를
했는데 우리 그룹친구들이 만들어준
왕관과 함께 했다.